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27일 | Global Fixed Income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

[7월] 앞당겨지는 인상 사이클

- 미국 FOMC: 동결 전망이지만 다수의 인상 소수의견 개선 예상.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된다면 기존의 인상 시점과 폭에 대한 전망치를 크게 수정할 필요
- 일본 BOJ: 동결 전망. 단, 엔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상 사이클 빨라질 것
- 브라질 BCB: 동결 전망. 불안정한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로 긴축 수준 오래 유지될 것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은 채권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다루며, 국가별 통화정책회의 리뷰와 프리뷰를 작성한 자료입니다. (미국, 일본, 브라질)

글로벌 원유 재고가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에너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유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던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이 커진다.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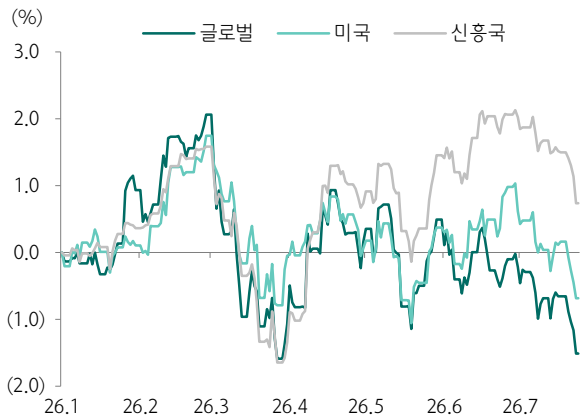
[미국] 시장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차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3개월 물과 기준금리 간 격차는 25bp까지 확대되며 추가 인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워시는 시장 가격이 연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언급한 만큼, 높아진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연준에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전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유가를 비롯해 관세와 AI 투자 모두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으로 남아 있어 긴축 재개 가능성이 크다. 7월 동결 전망이지만 인상 소수의견 개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일본] 최근 BOJ와 미 재무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도 인상 기대를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이다. 2년 금리는 1.50%대로 상승해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GPIF 카드는 장기 금리 안정과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데 일시적으로나마 유효했다. 다만 일본 경제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 완만한 경기 회복세와 견조한 기업 투자, 높은 가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7월 동결 후 9월 인상 전망한다.

[브라질] 고금리 영향으로 일부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인하 기대감을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 28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 목표 수준으로 회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상향 조정되면서 긴축 유지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과 룰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역시 물가 상방 요인이다. 8월 기준 금리 동결 전망하며 당분간 듀레이션 축소 전략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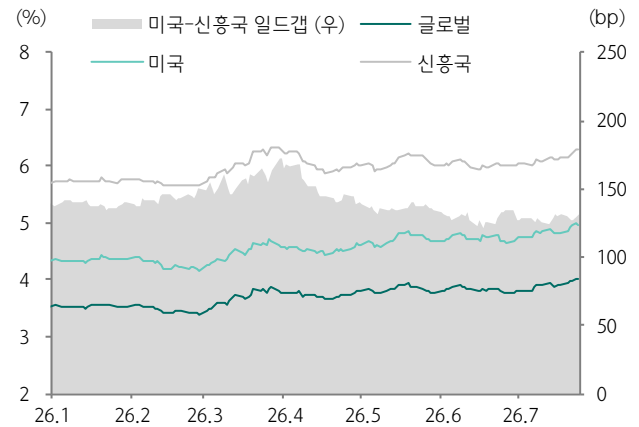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뒷장 참고

도표 1. 선진국 vs 신흥국 채권시장
: 연초 이후 신흥국 채권시장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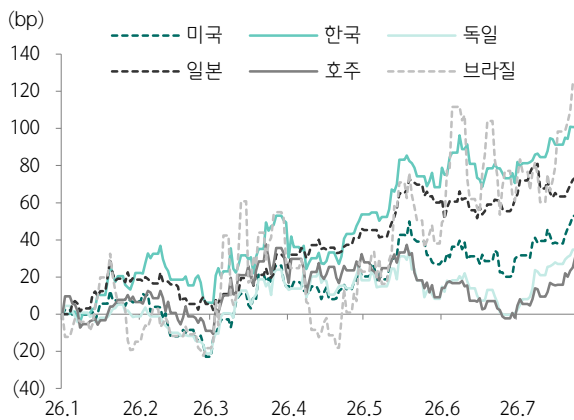
주: Global, US, Emerging Aggregate 지수 수익률 정규화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선진국 vs 신흥국 국채 금리
: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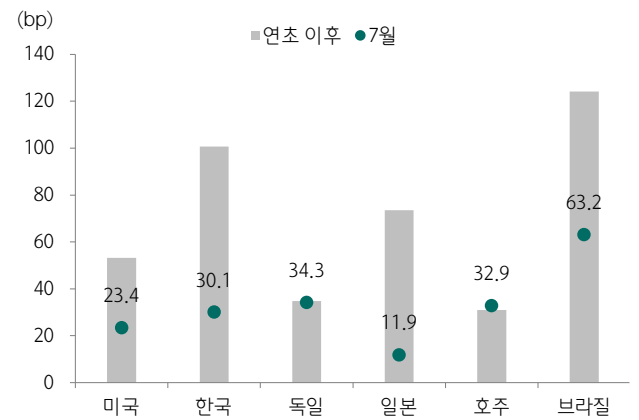
주: 금리는 YTW(Yield to Worst)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주요국 국채금리
: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되면서 글로벌 국채금리 동반 상승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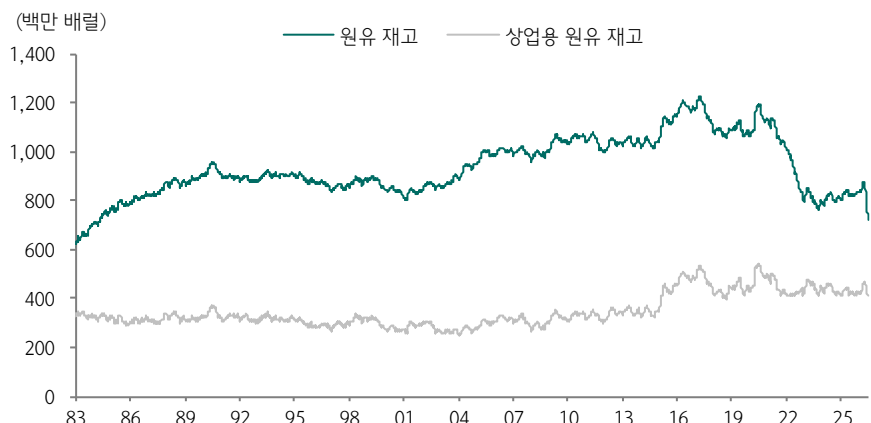
도표 4. 주요국 국채금리
: 7월 한 달간 브라질 → 독일 → 호주 → 한국 → 미국 순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Key Chart: 글로벌 원유 재고
: 글로벌 원유 재고는 이미 빠듯한 상황

원유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충격이 지속된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위험



주: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략 비축유(SPR)를 제외한 수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1. 미국_FOMC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의 Review 및 Preview를 담은 내용입니다.

1-1. 6월 FOMC

1-1. 6월 FOMC: 워시 데뷔전

포워드 가이드스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건조한 성장과 강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 안정 달성 의지를 강조했다. 점도표는 올해 중간값 0.5회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매파적으로 해석됐다. 기자회견에서 워시 의장은 고용 리스크에 대한 언급보다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인상 기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2년 금리는 당일 10bp 급등했다.

1-2. 7월 FOMC

1-2. 7월 FOMC: 높아진 긴축 재개 가능성

7월 들어 미국채 수익률곡선은 가팔라지고 있다. 이란과의 MOU 파기 이후 브렌트유가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공급과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연준이 소홀하게 대할 것 같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워시는 “시장은 시장 가격을 통해 연준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해 줄 것이고, 연준은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워시는 높아진 인상 확률을 보고 시장이 인상을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선물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7월 인상 확률은 30%를 상회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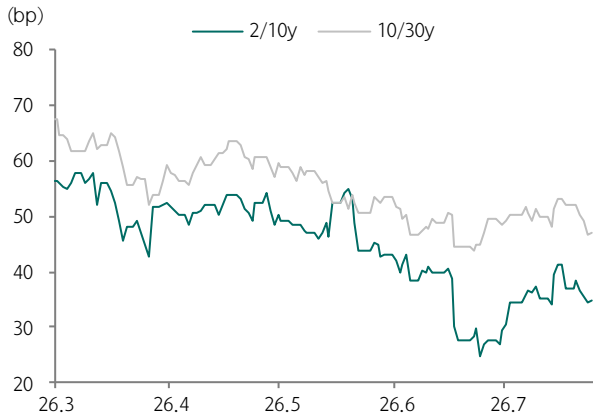
3개월물과 기준금리(실효 연방기금금리) 간의 갭은 25bp까지 확대됐다. 즉, 3개월 내 한 차례 인상 기대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년물과의 갭은 70bp까지 확대되며 향후 2년 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

투표권자 중 해맥과 로건은 이미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주요 인사들도 정책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월러도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 세 가지(관세, 에너지, AI) 모두 여전히 물가 상방 요인으로 남아 있다. 특히 브렌트유는 5월 고점에 빠르게 근접 중이며, 트럼프는 301조를 활용해 주요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효 관세율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시장은 ‘조만간’ 연준의 인상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데이터에 입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기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 금리 상승세가 일부 진정될 수 있을 듯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연준 베이지북과 소프트 데이터를 통해서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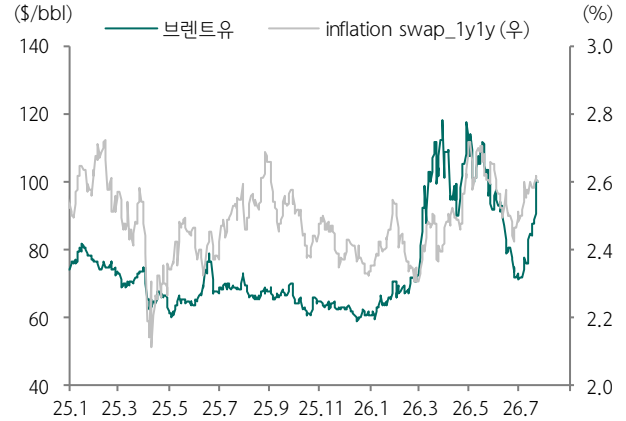
유가 충격에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하며,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높은 물가 수준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소매업체 매출과 레드북 리테일 매출 등 주요 명목 지표들도 빠르게 상승 중이다. 건조한 성장을 추세와 누적되는 물가 압력은 연준의 긴축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클레블랜드 연인이 추정한 근원 PCE(6월 3.33%, 7월 3.36%)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0%대 초반 수준이며, 테일러 준칙을 적용해도 현재 연준의 긴축 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시장의 인상 우려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7월 동결 전망하지만, 인상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도표 6. 미 국채 수익률 곡선
: 6월 말 이후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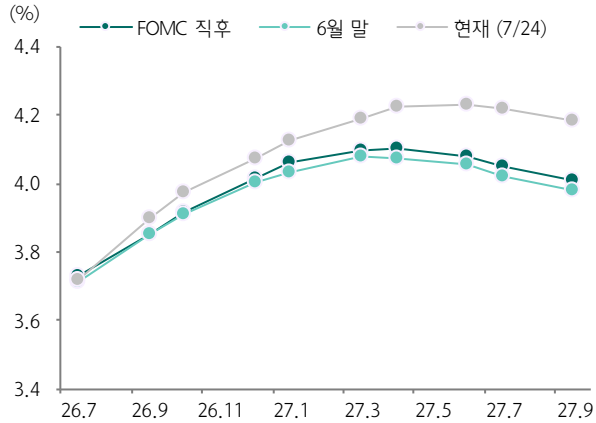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브렌트유 추이
: 이란과의 MOU 파기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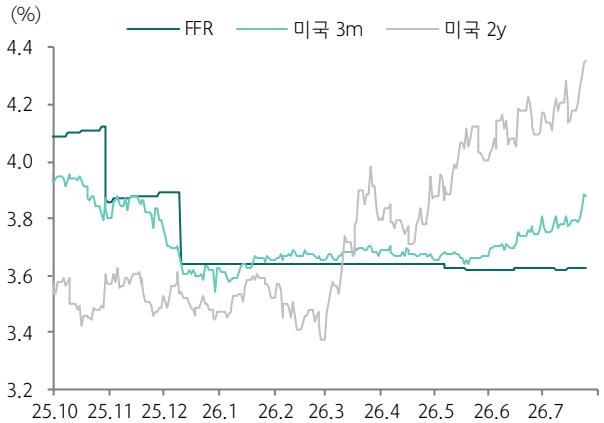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8. 선물시장 인상 확률 반영 추이
: 시장의 통화 긴축 우려가 높아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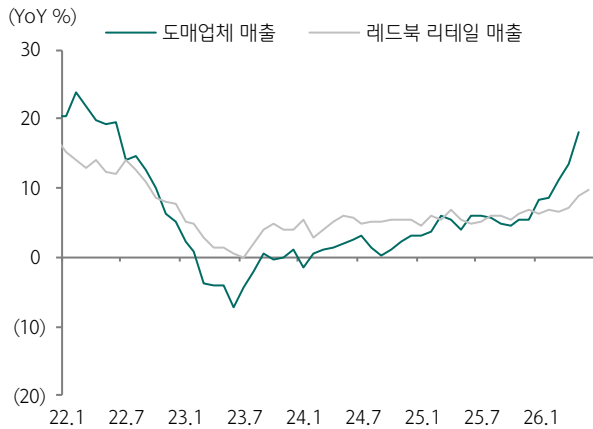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9. 미국 주요 금리
: 향후 3개월 내 한 차례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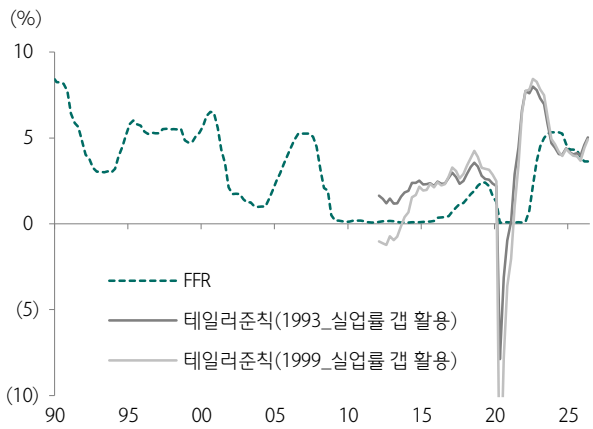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0. 도매업체와 리테일 매출 추이
: 견조한 성장을 추이 이어가는 중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테일러 준칙(Taylor Rule)
: 현재 연준의 긴축 강도는 미미한 수준



자료: Atlanta Fed, 하나증권

2. 일본_BOJ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의 Review 및 Preview를 담은 내용입니다.

2-1. 6월 BOJ

2-1. 6월 BOJ: 물가 상방 리스크에 초점

BOJ가 6월 25bp 인상과 함께 매파적인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일본 10년 금리는 당일 6bp 넘게 급등했다. 경제 하방 리스크는 다소 하락했지만, 기업 간 비용 전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기저 인플레이션도 하반기 중 목표치 2%를 상회해 이탈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명시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방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통화정책에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2-2. 7월 BOJ

2-2. 7월 BOJ: 빨라질 인상 사이클

BOJ가 엔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인상 주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보도와 함께 미 재무부가 일본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BOJ에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인상 기대가 빠르게 반영되며 2년 금리는 1.50%대로 올라서며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말 이후 장기 금리 급등과 커브 스틱프닝을 이끈 주범은 다카이치 행정부가 발표한 초장기 투자 로드맵과 이에 따른 재정 훼손 우려였다. 10년 금리는 장중 2.9%까지 상승하며 주요국 대비 커브 스틱프닝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가타야마 재무상은 엔화 약세를 저지하고 장기 금리 안정을 도모하게 위해 GPIF 카드를 꺼내들었다. GPIF 자산배분 규정 상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상한선(31%)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유입 규모는 약 12조 엔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급 기대감이 높아지며 장기 금리는 2.7%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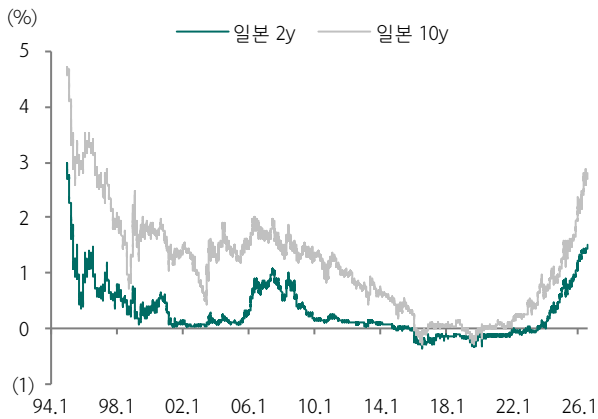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는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지역경제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9개 지역 모두 4월과 동일하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항목 역시 견조하다. 공공투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설비투자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거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이다. 물가 영향으로 민간소비 심리는 소폭 약화되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견조하거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BOJ의 분기 서베이에 따르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들은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은 +13.1%, 향후 5년간 +10.8%로 전망했다. 결국 BOJ의 금리 인상 명분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완만한 성장 회복세와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인상 기대를 높이고 있고, 무엇보다 재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환율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에 있는 만큼 BOJ의 인상 사이클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7월 동결 후 9월 인상을, 연내 10년 금리 상단 3.00% 전망 유지한다.

도표 12. 일본 주요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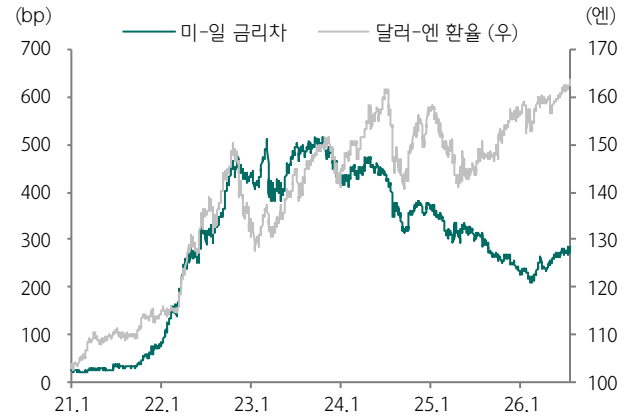
: 인상 기대감 반영되면서 2년 금리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3. 달러-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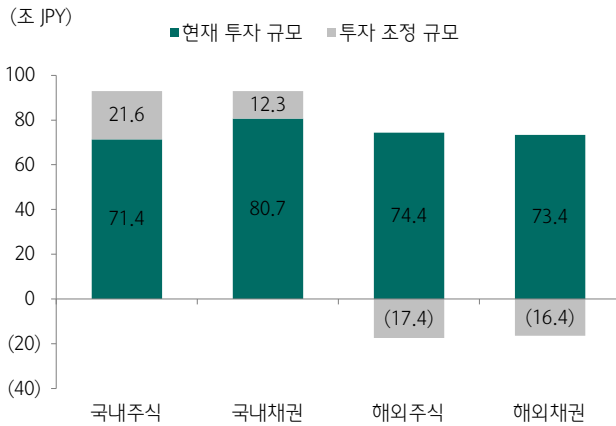
: 2024년부터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에도 엔화 약세 지속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4. GPIF 發 수급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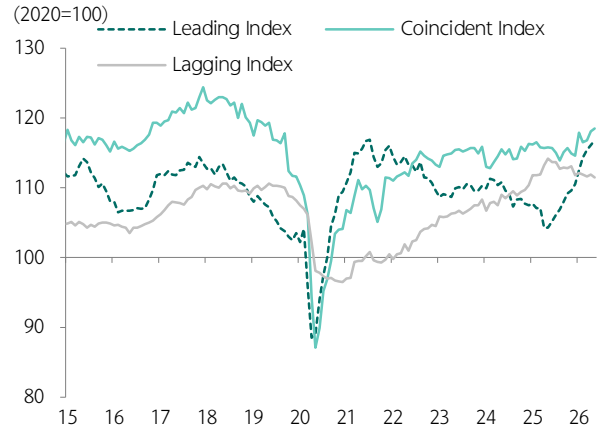
: 국내 채권(JGB) 유입 가능 규모는 최대 12조 엔



자료: GPIF, 하나증권

도표 15. 일본 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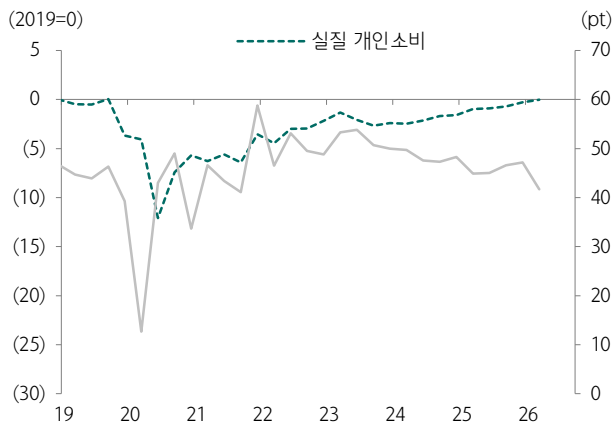
: 기업 환경 선행지표는 꾸준히 우상향 추세



자료: Cabinet Office, 하나증권

도표 16. 소비는 여전히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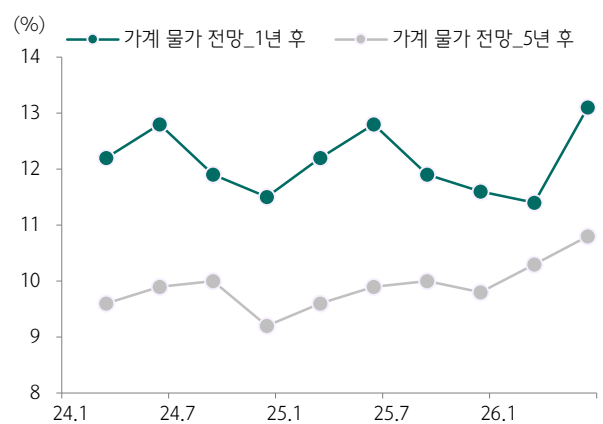
: 소비 심리는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잘 버티고 있음



자료: BOJ, 하나증권

도표 17. 가계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 BOJ의 금리 인상 명분은 강화되는 중



자료: BOJ, 하나증권

3. 브라질_BCB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의 Review 및 Preview를 담은 내용입니다.

3-1. 6월 BCB

3-1. 6월 BCB: 매파적 인하

BCB는 3차례 연속 25bp 인하를 단행했다. 다만 성명서는 4월 대비 매파적으로 해석됐다.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완만'에서 '가속화'로 변경했으며, 26년과 27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에서는 소비 부문의 총수요 자극이 성장을 이끌어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전망 악화에 대응해 통화정책 시계를 기존 27년 4분기에서 28년 1분기로 연장했다는 점을 가장 주목했다. 물가 목표 수렴 시점을 완만하게 가져감으로써 6월 25bp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3-2. 8월 BCB

3-2. 8월 BCB: 성급한 인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

최근 2년 간 고금리 여파가 일부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5월 신규 고용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6월 IPCA 물가는 전년동월비 4.64%로 여전히 목표치 상단을 상회 중이지만 5월(4.72%)보다는 소폭 둔화됐다.

하지만 BCB의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7월 한 달간 브라질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활동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발표된 이후 B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영향이다.

GDP 성장률의 프록시(Proxy)로 여겨지는 경제활동지수는 5월 들어 예상치를 상회했다. 유가 충격에도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룰라 정부가 소득세 면제 확대 및 가게 부채 감면 등 막대한 재정 지출 영향이 컸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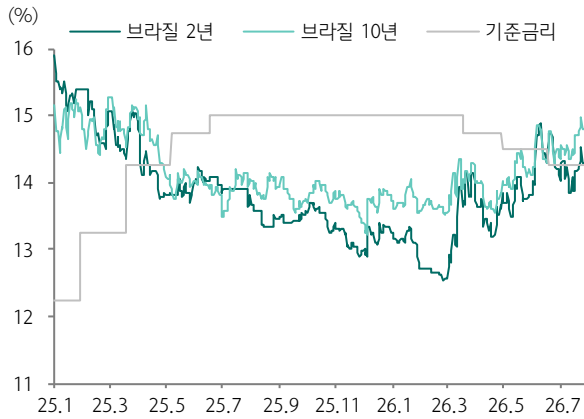
BCB 서베이에서 28년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존 3.70%에서 3.78%로 상향 조정됐다. 브라질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팬데믹 이후의 물가 충격 이후 BCB의 물가 목표치 3%로 돌아간 적이 없다. 오히려 기대치는 목표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란과의 분쟁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브렌트유가 5월 중순 고점에 근접하기 시작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 헤알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원화가 주요국 대비 강세폭이 가장 컸기에 헤알-원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헤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인 것이다.

종합해보면 완만한 경기 회복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BCB의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에 인하 여력은 충분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인하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갈리폴로 총재도 최근 불안정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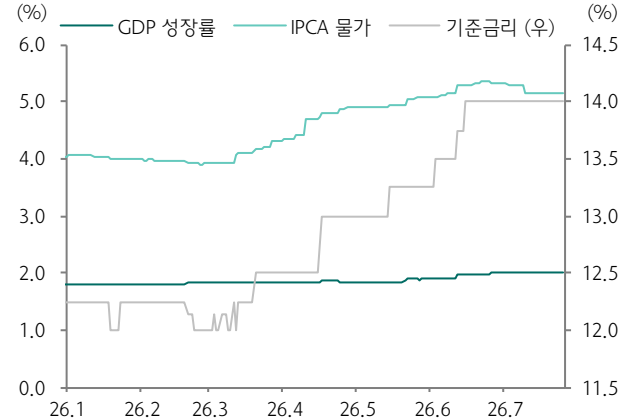
이에 8월 BCB에서는 기준금리 14.25%로 동결 전망한다. 브라질 채권의 경우 당분간 듀레이션 축소 전략을 유지한다. 기존 전망대로 달러 표시 채권 → 단기 헤알화 표시 채권 순으로 선호한다.

도표 18. 브라질 주요 금리
: 7월 한 달간 가파른 커브 스티프닝 (장기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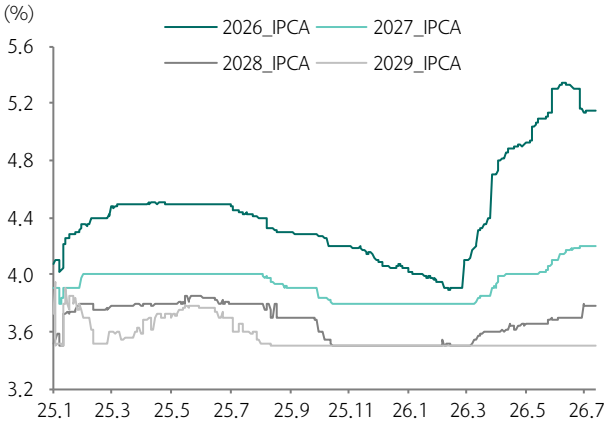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9. 주요 지표 전망치
: 연내 인하 기대감은 큰 폭으로 낮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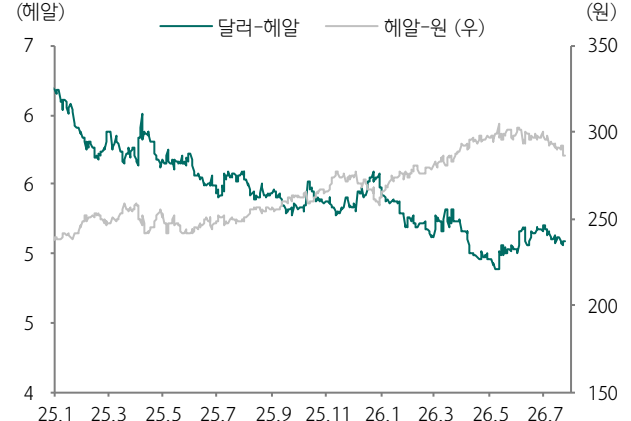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0.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 단기간 물가 안정이 쉽지 않다는 시각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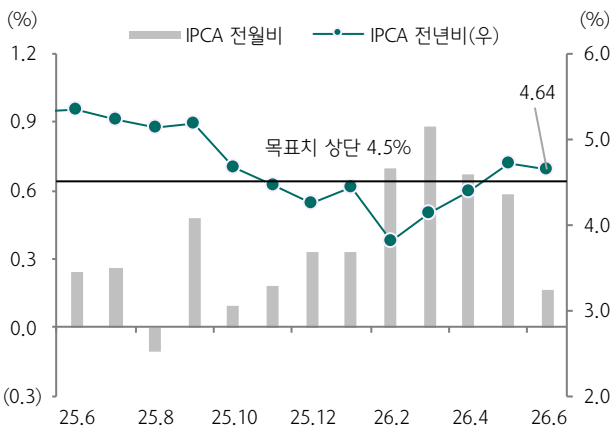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1. 환율 추이
: 헤알화는 달러 대비 강세에도 원화 대비로는 약세 (원화 초강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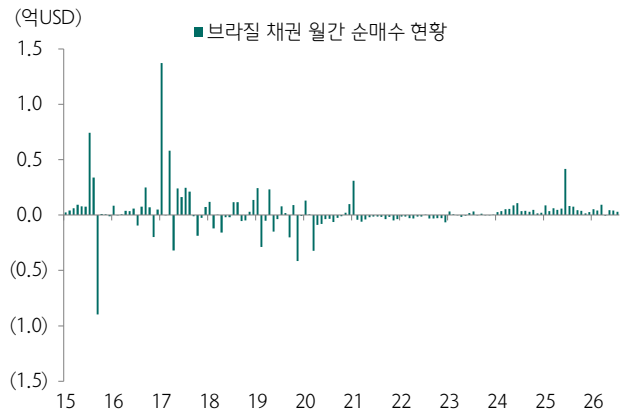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2. IPCA 물가 추이
: 2개월 연속 물가 목표치 상단을 상회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3. 국내 투자자 브라질 국채 투자 현황
: 인하 기대감 축소되면서 순매수 금액도 미미한 수준



자료: 예탁결제원, 하나증권

4. 주요국 인사 발언

- 미국: 대부분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몇몇 인사들은 정책 전환(인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기 시작
- 일본: 엔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BOJ가 인상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보도. 다카이치가 임명한 두 위원(아사다, 사토)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지
- 브라질: 갈리폴로 총재는 불안정한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긴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인하 기대감이 대폭 축소된 모습

도표 24. 주요국 인사 발언 정리

구분	주요 인사/ 위원	날짜	발언
미국	워시	7/15 7/7	- SI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 - 5개의 TF가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 방식 검토 및 대대적 변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윌러	7/14 7/7	- SI 투자 확대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물가가 수개월간 안정적이라면 동결이 합리적 - 포워드 가이드언스는 항상은 아니지만 귀중한 도구.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
	바	7/15 6/3	- SI가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늘릴지는 불분명 - 당분간 금리 동결이 적절. 경제는 호황이며 인플레이션은 압도적인 위험 요소
	쿡	7/16 5/28	- SI 구축과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동시장 위험보다 큼 - 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될 위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할 필요
	윌리엄스	7/15 7/10	- SI가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 가하고 있지만 금리는 적절한 수준. 지금은 공급과 수요 사이의 경쟁에 직면 - SI발 수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수요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
	로건	7/16 6/4	-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것이 연준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현재 금리 수준은 중립~완화 수준으로 경제를 진작시키고 있음
	해맥	7/17 7/1	-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용보다) 큰 리스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의 확산 범위가 크다고 평가 - SI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경제 수요가 여전히 강하며,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소
	굴스비	7/15 6/26	- 6월 물가 데이터는 놀랍도록 안정적. 다만 추세를 평가하려면 한 달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 -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물가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워시의 포워드가이드언스 제한 의견에 동의
	데일리	7/2 6/5	- 다소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하락 예상 - 에너지 가격이 상품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고, 안정적인 노동시장도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
	슈미트	7/16 5/29	-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인플레이션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 -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
일본	우에다	6/3	- 미국, 유럽과는 달리 일본 정책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에 있지 않음 - 유가 상승으로 근원 CPI 상승세 가속화될 것. 적절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
	히미노	6/30 5/26	- BOJ의 채권 매입은 통화정책과는 별개 - 적절한 속도로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적절히 통제될 것이라는 신뢰 유지가 중요
	가타야마	7/10 6/9	- 유사시 일본은행은 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단호한 통화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외환 시장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사토	6/30	- 물가상승률이 과열될 위험이 일부 관찰될 수 있지만,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확고히 자리 잡지는 않았음
	타무라	6/25	- 중립금리 수준인 2%를 향해 몇 달마다 금리를 인상할 필요
브라질	갈리폴로	7/25 5/25	- 이미 부분적으로 불안정했던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더욱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 - 노동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이는 중
	데이비드	5/28	- 공급 충격이 27~28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 - 제한적인 금리 정책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

자료: Bloomberg, FED, BOJ, BCB, 언론보도,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